



김윤희 | 햇불신대

1. 서론¹⁾

조지바나(George Barna)의 바나리서치가 2000년도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그리스도인 이혼율이 비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혼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 대 24%). 이러한 현상을 이멸징 트렌즈(Emerging Trends)라는 잡지(2001년 9월호)에서는 “종교는 성장하고 있지만 도덕은 후퇴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²⁾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있는가

1) 이 글은 2012년 12월 6일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축약하고 수정한 것이다.

2) 켄트 휴즈, 「구별하라」(정정호 옮김), (서울: 사랑플러스, 2006), 17-18, 원제 Hughes, Kent, *Set*

(미국의 현상을 보았을 때)의 원인과 평가 중의 하나로 신약학자인 로버트 건드리는 말씀의 부재로 들고 있다. 그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Message)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마사지’ (Massage)를 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즉, ‘구도자의 감수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복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락시키고 대신 그들을 마사지 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³⁾ 문제는 마사지 자체에도 있지만 그 마사지 속에는 세속 성을 쫓피우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⁴⁾ 나는 이런 진단이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한국교회 설교분석에 따르면 목회자들이 설교한 성경책은 요한복음, 로마서, 창세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에베소서 순으로 나타났다.⁵⁾ 강단에서 구약설교의 부재는 이미 알려진 바이다.⁶⁾ 이것도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구약의 신관이 부족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설교의 목적에 대한 한 설문에서 목회자 응답자의 61.1%가 자신의 설교가 ‘성도들을 격려, 위로, 축복’ 중심이 ‘죄, 회개’의 설교 (12.4%) 보다 강한 편이라고 대답했다.⁷⁾ 이러한 통계로 유추해 보면 이미 구약설교의 빈곤에 더해 ‘죄, 회개, 심판, 율법, 저주’ 등의 메시지가 강한 구약의 많은 본문들은 더욱 더 강단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창세기는 그나마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호하는 책인 것으로 나타났

Apart: Calling a Worldly Church to a Godly Life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3).

3) Robert Gundry, *Jesus the Word According to John the Sectarian: A Paleofundamentalist Manifesto for Contemporary Evangelicalism, Especially Its Elites,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2002), 78. 캔트 휴즈, 윗글, 17-18.

4) 캔트 휴즈, 윗글, 17-18.

5)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엮음, 『한국교회 설교분석』 목회와 신학 총서 01 (두란노아카데미, 2009), 19, 131.

6) 차준희, “최근 한국 교회의 구약설교에 관한 연구: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2011년 12월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 논문을 참고하라.

7)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엮음, 윗글, 43-44.

다. 이 논문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들을 지적하고 각 오류들에 대해 창세기의 실제 설교 사례를 제시하며 각 설교의 (목회자 중심의) 주석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교회의 강단이라는 현장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며 보다 성서적인 설교를 하기위한 구약학자로서의 실제적인 제안을 감히 담고 있기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성경의 주해를 설교로 강해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구약학자들도 이해하고 신학교에서의 가르침에 반영하기를 또한 희망해 본다.

2. 설교에서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들과 그에 대한 사례분석

설교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설교는 주해자가 아니며 정확한 주해를 하더라도 그것을 현대의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술과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해, 강해, 설교전달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⁸⁾ 구약의 메시지를 현대의 청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약학자들을 포함해 목회자들이 흔히 범하는 대표적인 오류들이 있다. 몇 가지의 실제 설교 예를 보면서 그러한 오류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보편화(Generalizing)의 오류

보편화의 오류는 성경 속에서 독특하거나 흔치 않은 내용, 또는 특정

8) 설교를 돕는 몇 가지의 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널드 R. 수누키안, 「성경적 설교의 초대」(채경락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원제 Sunukjian, Donald R.,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7); 정용섭, 「속 빈 설교 짝찬 설교」(대한기독교서회, 2006); 정용섭,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대한기독교서회, 2007); 스캇깁슨(책임 편집), 「구약을 설교하기」(김현회옮김), (디모데, 2008). 원제 Gibson, Scott, *Preaching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2006); Sidney Greidanus, *The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8); Steven D.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사건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⁹⁾ 이 보편화의 오류의 설교의 예를 보자. 창세기 4장 16-17절에 대한 한 설교이다.

17절을 보면 가인이 늦 땅으로 옮겨 간 후 처음 한 일이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쌓은 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 에덴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대용품으로 돈이나 권력을 찾습니다. 가인은 에덴동산을 회복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동산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성을 만들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성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적과 원수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리장성이고, 동대문, 남대문인 것입니다. . . . 우리는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담을 쌓고 담 위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꽂아 놓습니다. 또는 감옥과 같이 철조망을 둘러 놓기도 합니다. . . . 인간은 돌로 성을 쌓고, 철로 철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결과는 '철장 안에 갇힌 신세'입니다. . . .¹⁰⁾

위의 설교는 성경본문이 지향하고 있는 전체 메시지보다는 본문 속의 한 요소(element)인 '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까지 연결을 시킨 것이다. 가인이 쌓은 성과 역사적으로 인간이 성을 쌓은 것과 일반 개인이 집을 보호하기 위해 담을 쌓은 것을 연계시켜 가인의

9) 더글라스 스튜어트, 「구약주석 방법론」 (박문재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295의 보편화 원리를 약간 더 응용했다. 원저 Stuart, Douglas, *Old Testament Exegesis*,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10) 하용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창세기 강해 2; 서울: 두란노, 1999), 47-8. 고 하용조 목사는 통합 축 대형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였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 계속 나올 설교인용에서 생략된 부분은 비슷한 말을 반복했거나 전체 흐름을 바꾸어 놓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면을 절약하게 위해 생략했음을 밝혀둔다.

사건을 인류보편적인 경험과 연결시키고 있다. ‘가인의 성’을 하나님을 대체한 상징으로 보았고 설교자의 주관적 논리적 전개 속에서 그것이 인간이 성과 담을 쌓는 영적 심리적 원인으로 전개를 해 나갔다. 가인의 성과 현대인의 성을 쌓은 삶의 모습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 속에서 나온 발상이다.

위의 성경구절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창 4:15)는 말씀에서 ‘표’는 히브리어로 **טֹט**(오트/표)인데 이것은 창세기 내에서 무지개 언약에서도 쓰였으며(창 9:17), 할례 언약의 표징으로도 쓰였으며(출 17:11), 오경 내에서는 안식일도 하나님의 표징으로 쓰였으며(출 31:13), 문설주의 피도 재앙을 피하는 표적이 되었으며(출 12:13),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표징(이적)이었으며(신 34:1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많은 일들도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이적’, 신 4:34). 그렇다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טֹט**(오트)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위의 성경구절에서 ‘성’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15절에서 **טֹט**(오트)이야기가 나온 바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15절에서 **טֹט**(오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가인을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보호역할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의 무서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복자의 손에 의해 피의 보복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그 이후 서술에 나타나는 가인의 성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복자의 손에서 보호를 위해 마련하신 방책으로서의 **טֹט**(오트)로 볼 수 있다. 유리하는 대신에 가인은 성을 쌓으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허락받은 것이다. 세일헤머(J. Sailhamer)는 이것을 오경 내에서 후에 나오는 ‘도피성’(민 35:9-34)의 원형으로 보았다. 가인의 성과 도피성이 둘 다 ‘피를 보복하려는 자’의 손에서 보호하려는 동일

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표 서술’ 뒤에 ‘성 서술’을 배열함으로 가인의 성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표’로 의도된 것으로 본다.¹¹⁾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심판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창세기 1-11장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가인서술에서도 일관성있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성은 심판 속에서도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가인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단어 속에는 후에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이 포로생활로 땅에서 추방당하는 동일한 단어가 발견된다(אָמַר 9:9).¹²⁾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인에게 주신 형벌 또한 후에 이스라엘이 겪은 형벌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가인에게 이미 ‘추방’이라는 형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보복자의 손에 죽는 이중 형벌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창 4:16)에서 ‘여호와 앞(면전)’이라는 표현은 오경 속에서 성막에서의 예배와 관계해 많이 쓰였다(예: 레 9:24; 22:3). 즉,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상징한다.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그 속에서 많은 문명적인 혜택을 누렸다. 그러한 문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것을 누릴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부를 줄은 모른 자들이다(비교: 창 4:26).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의 전형적인 표현이다(창 12:8; 13:4; 21:33; 26:25). 저자는 셋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을 문명의 기원을 이룬 자들로 셋의 후손을 예배의 기원을 이룬 자들로서 대조시키

11) John H. Sailhamer, “Genesis”, Frank Gaebelien(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0), 66-67.

12) U. Cassuto, *From Adam to Noah*, Israel Abrahams (Trans.) (The Hebrew University, Jerusalem:The Magnes Press, 1978), 221.

고 있다. 에덴을 떠나 사는 자들의 우울한 삶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희망을 준다.

가인의 성에 대한 메시지는 가인의 죄와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고 정확한 주석적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드러나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화의 오류는 그 메시지의 한 구성 요소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전체적인 메시지처럼 제시하고 또한 그 한 요소를 모든 사람의 경험에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과 인간역사에 나타난 성과 담을 보편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주석상 무리가 있다.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해석적 의미를 파헤치는 노력보다는 성경 서술에 포함된 하나의 요소를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과 즉각 연결시키는 오류는 많은 설교자들이 흔히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 속의 단어나 표현의 일부를 연결시키고 연상시키는 방법의 문제점은 본문의 중심 메시지와 관계없는 메시지가 만들어져 현대인에게 전달되고 적용된다는 것이다.

2) 모범화(Exemplarizing)의 오류

모범화는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¹³⁾ 이것은 주로 성경 인물들을 둘러싼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 핵심을 둘러싼 인물들의 일부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음의 설교의 예를 보자.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요셉의 꿈 해몽서술에 관한 것이다(40:9-22). 각 관원장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 했고 요셉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몽을 했으며, 이후에 사건은 그 꿈대로 이루어 졌다.

13) 더글라스 스투어트, *읽글*, 294.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 해석은 일단 해석이 명확했고 적용이 아주 구체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요셉이라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명확한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 .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살 때 꾸었던 꿈을 계속 추억하면서 . . . 그는 계속 그 꿈을 생각했고, 그 꿈을 해석했으며, 자기가 살고 있는 시점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 .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만 보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 .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끌어내지 못한 채, 점장이라도 찾아 가고 싶을 만큼 정신적으로 심한 방향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 요셉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적용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 .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과 함께 인생 밑바닥까지 기꺼이 내려갈 때, 비로소 말씀이 열리고 그 해석이 성취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 ¹⁴⁾

많은 설교자들이 구약에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을 접할 때에 그들의 삶의 묘사적(descriptive)인 부분조차도 규정적(prescriptive)으로 해석하

14) 김서택, 「은잔의 테스트」 (창세기 강해설교 9 [40-44장]: 흥성사, 2000), 28-29. 김서택목사는 대구 동부교회 합동측 목사로 최근 (2012년)까지 그 동안 계속해온 신구 약 강해설교 집안간을 출판했다. 그는 뉴월드 공동체 교계뉴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설교철학을 피력했다: “설교는 마치 큰 바위를 드릴로 뚫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의 논리가 시대를 향해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논리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마치 작곡가와 가수를 함께 겸하고, 교향곡을 작곡하고 동시에 연주까지 하는 종합 예술가와 같습니다. 설교라는 ‘벽돌’로 성도들의 머리를 때리지 말고 집을 지어 여기는 현관, 여기는 주방, 안방이라고 친절하게 소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최종 선택을 하게 해야 합니다.”(2012년 11월 13일).

러는 경향이 있다. 즉, 그들이 한 일의 일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모범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는다. 위의 설교자는 본문의 전체 문맥보다는 요셉의 꿈의 해석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우리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꿈을 해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등식을 성립했다. 물론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본 것이 꼭 틀리다고 마는 볼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본문의 진정한 의도인가에 있다. 위의 설교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요셉의 꿈의 해석능력도 하나님의 계시로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닌 수년간에 그것을 붙잡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한 결과로 얻어진 것임을 강조한다.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본으로 삼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열심히 한다면 그 말씀에서 진리를 이끌어 내는 능력으로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u>요셉</u>	<u>현대의 우리</u>
요셉의 꿈 =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꿈 해석은 훈련의 결과	우리의 말씀 적용 능력도 훈련의 결과
꿈의 해석으로 문제 해결	말씀으로 문제해결

이런 것이 전형적인 모범화의 오류이다. 요셉의 꿈의 해석 능력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했으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말씀을 알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아니

라는 것이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은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본문의 핵심은 오히려 8절에 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성경본문은 오히려 요셉의 꿈의 해몽 능력이 요셉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한다. 누구도 요셉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는 그 시대에도 요셉 외에는 없었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허락하신 능력이었다. 이집트인들도 꿈은 신들이 주는 선물이라 믿었다. 그러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복잡한 자신들의 과학과 주술에 의존했으며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배워야 했다.¹⁵⁾ 일단 요셉은 그런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반대극부의 인물인 철저한 비전문가이다. 그는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올바른 꿈의 해석의 출처임을 밝힌다. 그러기에 그 꿈의 성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은 본문은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화를 하려다 보니 요셉이 오히려 이집트의 꿈 스페셜리스트들처럼 오랜 기간을 걸쳐 해석을 습득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요셉을 그런 자들과 동류의 카테고리에 넣어버린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8절)는 고백은 요셉스토리 전체의 중요한 서술 전략의 일부이다.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모든 사건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저자의 전략이다. 요셉도 이것을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창 50:20). 브루그만(W. Brueggemann)은 요셉 서술의 꿈의 신학적 의도의 3가지 특징을 지적한다. 첫째는 신율적(*theonomous*)이다. 하나님만이 미래

15) Gordon Wenham, *룻길*, 382.

아시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결정하신 다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선포적(*Kerygmatic*)이다.¹⁶⁾ 현재로부터 유추되거나 짐 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의 선포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eschatological*)이다.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해결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렇듯 8절이 강조되지 않으면 요셉서술 메시지의 생명력도 약화된다. 40장에서 8절 다음으로 중요한 구절은 14-15절이다: “. . .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무고한 희생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후에 의로운 자의 희생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의 설교의 해석은 바로 이러한 핵심 본문 전략이 완전히 간과 된 채 설교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모범화를 시도한 데서 온 오류이다.

40장은 39장의 사건과도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39:21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의 말씀에서 “인자를 더하셨다”(אֶת-הַחַסְדִּים הֵוֶה)는 것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다. 그러나 ‘인자’(חַסְדִּים)는 단독적으로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로서 창세기의 서술에서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문맥에서 사용되었다(창 24:12, 14, 27).¹⁷⁾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 저자는 이것이 요셉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었음을 저자는 보여주려 한 것이다. 즉, 그의 꿈의 해석능력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그의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석의를 하고 나면 굳이 성경 본문의 의도를 변개하지 않아도 전체 메시지 속에서 요셉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설교의 대지가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떠오

16)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323.

17) Gordon Wenham, *룻*, 381.

른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모범은 첫째로 그는 환란 중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했으며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둘째, 요셉은 꿈의 해석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구명해 보려는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더 초점을 두었다. 셋째, 술말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를 잊어 버렸다는 것은 전체 문맥 속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고도 여전히 잊혀진 존재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창세기 39-40장의 꿈의 해석의 문맥에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요셉의 운명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요셉이 인간을 의존했다면 술 말은 관원장의 망각과 함께 그도 잊혀졌을 것이다. 인간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그 분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개요를 가지고 요셉의 신앙을 모범으로 삼아도 이제 안전하다. 그것이 본문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모범화의 오류는 설교자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해 본문의 핵심을 벗어나 부정확한 어떤 한 요소에서 모범을 삼으려 하는 것이 문제이다.

3) 도덕화(Moralizing)의 오류

도덕화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9장의 설교의 일부를 보자. 이것은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은 장면을 보고 그의 아들들의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다’는 히브리어로 ‘라아’인데 이 단어는 지나가다가 슬쩍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흥미 있게 계속해서 주목했다는 뜻입니다. . . .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www.kci.go.kr

광경을 계속 보면서 즐겼다는 말입니다. 함의 태도는 이웃의 실수를 즐기는 자세입니다. 이웃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분 좋아하는 놀부 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 . . 이웃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재미있는 화제거리가 생긴 것을 기뻐합니다. . . . 저는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도 못살게 굴던 원수 같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쁜 소식이라며 동네방네 알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좋아하기는커녕 통곡하며 애가(삼하 1:19-27 참조)를 지어 불렀습니다. 함의 태도와는 아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웃이 실수하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즐기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합니까? 함의 태도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처사입니다.¹⁸⁾

결국 위의 설교에 따르면 창세기 9장과 사무엘하 1장 다윗의 애가의 중심 주제는 조금 과장적으로 말해서 ‘이웃에 대한 놀부심보를 버리고 이웃의 불행을 위해 진정으로 애도하며 기도하라’가 된다. 위의 성경 본문의 의도가 과연 그러한가가 문제이다. 도덕화란 도덕적인 영향을 본문에서 찾아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매튜슨은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공을 치는 일부 설교자들은 종종 도덕화하기 라고 불리는 병커에 빠지곤 한다”라고 하며 ‘도덕화’가 무엇이 그렇게 잘못 되었는지를 의아해 하는 자들에게 의외로 그 위험함을 지적한다.¹⁹⁾ 칼 크로밍거는 구약의 내러티브에서 무조건 윤리적 적용만

18) 이동원, *읽글*, 184-85.

19) 스티븐 매튜슨,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이승진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171. 원제 Mathewson, Steven D.,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2).

을 이끌어내려는 것을 가리켜서 ‘잘못된 형태의 교훈점 만들기’라고 명명하며 성경 본문에서 “. . .하라!” 나 “. . .하지 말라!”와 같은 적용점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엽적 교훈에 기초한 “. . .하라!” 나 “. . .하지 말라!” 식의 적용을 거부한다는 것을 강조한다.²⁰⁾ 궁극적으로 도덕화는 “성경의 모든 본문들 속에서 삶을 위한 원칙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²¹⁾ 도덕화의 문제점은 그 자체가 틀렸다고 보다는 그러한 도덕적 요구가 본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본문을 처리하다 보면 본문의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사장될 수 있다는 위험함에 있다.

창세기 9장 자체는 여러 가지 해석학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이론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적어도 서술 속에 나오는 함과 노아와 가나안과의 관계가 단순히 이웃을 잘 대하라는 주제의 차원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너무 성급히 본문을 현대의 성도들의 삶과 관련시키려다 보면 도덕화의 오류에 쉽게 빠지게 된다. 위의 설교자의 설교를 좀 더 읽어보자.

함은 아버지 노아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비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함에게는 저주가 내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함에게만 저주가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 . . 아버지 보다 아들에게 더 큰 저주가 내렸습니다. . . . 자녀를 두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괴로움보다 자녀가 겪는 고통이 열배, 아니 백배나 더 큰 아픔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 . . 함이 받은 저주는 바로 자녀의 고난을 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20) Carl G. Kromminga, "Remember Lot's Wife: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Texts", *Calvin Theological Journal* 13 (1983), 35. 스티븐 매튜슨, 윗글, 173-74에서 인용.

21) 더글라스 스튜어트, 윗글, 294.

지금 당신이 이웃이 저지른 실수를 관대히 보아 주십시오²²⁾

위의 설교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함은 저주를 받지 않았다. 오로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둘째, 본문 어디에도 함이 받은 저주는 자녀의 고난을 응시하는 것이라고 시사한 부분이 없다. 물론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저자는 함의 반응과 감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으므로 그 생략을 존중해 주는 것 또한 성경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비약적 적용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갑자기 이웃으로 넘어가는 것은 ‘논리성이 결여된 적용 연결고리 만들기’의 인상을 준다.

창세기 9장의 이 사건은 셈, 야벳, 함으로부터 그들의 자손과 인류가 번져나가는 창세기 10장의 ‘민족들의 표’가 나오기 전에 앞으로 전개될 이들 후손들의 사건들 중에서 오경 속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될 가나안 자손들의 미래를 미리 예견한 것이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그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가나안 인들에 내릴 형벌을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그의 아버지 함의 행동 속에서 미래에 있을 후손의 행동의 일종의 유형 또는 모형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되는 서술이다. 그러기에 함의 다른 아들들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다. 함의 모든 아들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나안만이 특별히 선택된 것은 미래에 있을 그들 자손들의 운명이 예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저자는 이 서술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펼쳐질 정치적 관계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해 놓은 것이다. 동시에 오라클 형태를 빌려옴으로 이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주권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무엘하 1장의 다윗의 애가가 기록된 이유는,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다윗이 결코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

22) 이동원, *뵈글*, 186-87.

려거나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의 의로움과 그의 왕권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도덕화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본문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며 다윗 서술과 노아서술의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사장시켜 버린다. 그러기에 유진 피터슨은 도덕화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기 까다한다.

설교 도중에 우리들 대부분은 성경 본문에서 소위 ‘영적인 교훈’이나 ‘도덕적 지침’, 또는 ‘신학적인 진리’라고 불리는 것들을 뽑아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정건한 모양으로 만들려는데 집착하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개선시키려는 것으로는 아주 부적절한 방식이며, 분명 복음적인 방법은 아니다.²³⁾

창세기를 설교함에 있어 도덕화의 좋은 예는 창세기 39장에서도 발견된다. 프레다임(T. Fretheim)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 유명한 에피소드가 종종 도덕적 우화로 해석되어 왔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성생활에 한계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음의 우려를 지적한다.²⁴⁾ 즉, 창세기 39장은 그런 식의 도덕적 해석이 보여주는 위험함을 잘 나타내는 장이다. 창세기 39장에는 야웨의 이름이 여덟 번 나온다(2, 3[2x], 5[x 2], 21, 23[2x]절). 요셉의 직접화술에서는 엘로힘이 사용된다. 그것까지 합하면 모두 아홉 번이다. 이렇게 한 장에서 평균을 넘는 하나님의 이름의 반복적 사용은 이미 이 장의 고도의 신학적 중요성을 반증한다.²⁵⁾ 그 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4번 반

23) Eugene Peterson, *Leap over a Wall: Earthly Spirituality for Everyday Christians* (New York: Harper Collins, 1997), 4. 스티븐 매튜슨, 윗글, 171-72에서 인용.

24) Terence Fretheim, “Genesi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Nashville: Abingdon, 1994), 609.

25) 예를 들면 유다 서술에서는 야웨가 3번이 사용된다 (창 38:7 [2x], 10).

복하는데 이 표현이 서술의 시작부분(2, 3절)과 보디발 아내의 유혹사건이 끝난 결말 부분(21, 23절)에 수미쌍관(inclusio)으로 양쪽에 두 번씩 사용된다. 또한 저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과 요셉의 형통함을 연관 짓는다(2, 3, 23절). 그리고 그 사이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에피소드를 삽입한 구조를 택하고 있다(창 39:7-20).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 그가 형통한 자가 됨 (2절)
- B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봄 →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봄 (3절)
- C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사건과 요셉이 감옥에 감 (7-20절)
- A'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 (21절)
- B'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결과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חֵן)를 입고 그의 주인은 모든 것(כָּל)을 요셉의 손(יָד)에 맡긴다(4절). 또한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신 결과 간수장에게 은혜(חֵן)를 입어 옥사에 관계된 모든 것(כָּל)을 요셉의 손(יָד)에 맡긴다(22-23절). 본문에서 옷(בִּגְדֵי) 베게드)이라는 단어는 여섯 번이 사용된다(12[2x], 13, 15, 16, 18).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과의 연결성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과 옷은 분리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이 있으며 이전 요셉서술과의 본문내적인 관련성(innertextuality)를 보여준다. ‘모든’(כָּל)이란 단어는 다섯 번이 나온다. 이것도 일반적인 반복의 숫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주제 제시의 주

장으로 관심을 모으는 문예적 방법이다. 즉, ‘모든’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형통의 범위가 무제한임을 의미하며, 무제한으로 형통하고 무제한으로 모든 것이 요셉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준다.²⁶⁾

이러한 석의 과정에서 39장의 몇 가지 신학적 메시지가 표면에 떠오른다. 첫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요셉에게서 ‘아무 문제없는 (problem-free)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직시해야 할 삶의 냉혹한 현실이다. 둘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흥하고 쇠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점이다. 역경의 시기와 형통의 시기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²⁷⁾ 그러기에 그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있음을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구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셋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성(性)의 충족과 특권을 누릴 기회, 즉 유혹과 위기의 순간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요셉의 그러한 신앙적 결단은 그의 신학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장을 단순히 성적인 유혹에 ‘NO’를 해야 한다는 도덕적 가르침으로 전락시킨다면, 본문의 지엽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과 그렇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문의 많은 심오한 신학적 메시지는 그늘에 가려지고 말며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다는 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덕화의 오류는 성경의 중심 신학적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6)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81), 107-8.

27) 이것은 시드니 그레이다누스가 제시한 것이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창세기 프리칭 예수」 (강정주/조호진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586.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Genesis* (Grand Rapids: Eerdmans, 2007).

4) 알레고리화 (Allegorizing)의 오류

창세기 24:10을 보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의 성에 이르러.”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리브가가 살고 있는 성에 도착한 이야기이다. 여기에 대한 설교의 예를 들어보자.

나훔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훔이 사는 성으로 약대 열 필에 값진 선물을 잔뜩 싣고 머느리 감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야웨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우리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을 상징하며, 물색중인 머느리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머느리감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냥 오시지 않고 약대 열 필에 선물을 잔뜩 싣고 오셨습니다. 성령은 오중 복과 삼중 복을 약대에 가득 싣고서 오늘 이 땅에서 머느리감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느리감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지 이삭을 머느리가 사는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머느리감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머느리 감하고 같이 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 . . 오늘 날 이 땅에는 신랑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간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 아직도 신부로 간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들이 간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²⁸⁾

28) 조다윗, 「창세기강해 (상)」 (서울 서적, 1993), 383. 조용기 목사는 초대형교회인 순복음 교회의 원로목사이다. 위의 설교자가 독창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참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일한 설교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W. I. Wilson, *Wilson's Dictionary of Bible Types*(Grand Rapids, Eerdmans, 1957), 15을 보라. 그레이다누스, 윗글, 30-31에서 인용됨.

이러한 설교는 전형적인 알레고리화에 속한다. 그것은 “어떤 본문의 여러 구성요소들은 오직 기독교 진리들의 상징으로만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²⁹⁾ 이것은 문자적 의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본문을 그 문맥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성경해석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설교를 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성경과 현재의 믿음 사이의 상충되는 것도 쉽게 피할 수 있다. 오로지 영적인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권위를 더해주는 면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성경 위에(above) 이러한 해석들이 더 권위를 갖게 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해석자의 주관성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본문의 의도와 관계없는 알레고리화가 지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5) 영해 (Spiritualizing)의 오류

창세기 8장 8-9절을 보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의 설교의 예를 보자.

오늘 저녁 생각하게 되는 이 사건은 그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신자의 영혼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때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모든 것을 관찰해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어디서나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 먼저, 방주를 떠난 비둘기를 생각해 봅시다. 비둘기가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늘 안전했습니다. 다른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홍수로 인해 죽었지만 이 비둘기는 은총을 받아 구출 받은 것입니다. 비둘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주 안의 의인 노아가 언

29) 더클라스 스튜어트, *릿글*, 295.

제나 이 비둘기에게 그 날의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 . . 우리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 . .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제공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기 위해서 날개를 펴며 눈을 떠서 다른 곳을 바라보려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까? 비둘기가 왜 날아갔습니까? 비둘기는 날개가 있어서 입니다. 날개를 가진 짐승은 본능적으로 날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의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날개를 펴서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우리에게 이 공상의 날개가 없다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증거하고 있는 소수의 명백한 진리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확고하고 진실하게 보이는 일들까지도 참으로 그런가 하여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믿음이란 이론으로 따져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 . . 비둘기는 전에 살던 곳을 찾아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 . . 노아가 내놓은 이 비둘기는 오랜 시간 방주 안에 있었지마는 방주에 들어오기 이전의 과거를 잊지 못했습니다. . . .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안식이 그런대로 있었습니다. . . . 우리는 지금 찬양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부르던 음탕한 노래가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행하던 그 어두운 죄악의 그림자가 회상되지 아니합니까? 이 육체가 땅에 묻혀 썩기 전에는 옛 성품이 자꾸만 되살아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 . . ³⁰⁾

위의 설교는 영해의 전형적인 예이다. 영해는 ‘사건들 또는 요소들이 실제로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종교적 진리를 담고

30) 박조준, 「창세기 강해」(도서출판한길, 1990), 64-66. 박조준 목사는 영락교회에 시무할 때는 예장 통합에 속해 있었으나 갈보리 교회에 시무하면서 독립교회연합 초대 총회장을 맡으면서 독립교단에 속하게 된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³¹⁾ 이것은 본문의 지엽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 삶에 영적인 비유로 본문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즉, 성경 본문의 어떤 요소들을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역사적인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유사(analogy)나 유추를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창 37 장)는 실제적인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잘못된 구덩이를 의미한다고 유추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구덩이를 찾도록 유도한다. 그것이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못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구덩이에서 빨리 나오도록 유도한다. 성도들은 이러한 메시지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문제는 이것이 본문의 의도나 메시지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구덩이는 구덩이 일 뿐이다. 본문에서 그 이상을 의미했다는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식의 영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요셉의 가장 어두운 기억이었고 트라우마(trauma)였음에 분명함으로 요셉에게 구덩이는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무서운 죄악의 기억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오히려 본문의 의도에 훨씬 잘 맞는다. 그러한 트라우마를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설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서의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훨씬 더 본문에 정확하고 명쾌한 설교가 될 것이다.

위의 설교에서도 비둘기가 비둘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묘사하며 비둘기의 날고 싶은 본능은 우리의 생각의 날개로 볼 수 있으며 그 본능대로 움직이면 진실까지도 공상 속에서 흔들리므로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거기에 더해 비둘기가 방주 밖으로 날아가려는 시도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대한 향수로 비유했다. 물론 여기에서의 심각한 오류는 비둘기가 날아간 것은 노아가 비둘

31) 더글라스 스튜어트, *윌클*, 296.

기를 내보냈기 때문이지 비둘기의 자의적 의지가 아니었음을 간과한 것이다. 창세기 본문은 노아가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여 비둘기를 내놓았다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창 8:8). 그러한 텍스트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넘어선 해석을 하려는 것이 영해의 유혹이다. 위의 설교에서 이 비둘기에 대한 영해는 63-71페이지에 걸쳐서 계속된다. 비둘기 날려 보낸 사건 하나에서 그렇게 많은 영적인 진리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영해의 장점은 본문이 훨씬 영적으로 심오해지고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문제는 성경 저자의 영성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성에 이끌려 본문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위에서 다른 오류 외에도 많은 다른 설교의 오류들이 있다.³²⁾ 위에 응용한 설교자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리더들이다. 그런 분들의 설교의 오류를 예로 들므로 비단 위의 분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오류들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설교비평가 정용섭은 설교자들의 문제를 “하나는 설교자들이 성서 텍스트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성서 텍스트가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서 텍스트는 실종된 채 설교자의 주관적인 신앙체험이 과잉 생산되며, 성서 텍스트가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지 규범으로만 취급된다”고 지적했다.³³⁾ 어떤 이들은 신자들이 그러한 설교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현재의 신학교의 현장에서처럼 석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배웠고 본인의 최선을 다해 설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도 인정한다. 이 글의 목적은 그러한 분들의 노고를 매도하지는 데에 있지 않다. 오히려 앞으로의 목회자들의

32) 더글라스 스투어트, *윌클*, 294-6을 보라.

33) 정용섭, *윌클* (2007), 5.

설교의 방향성을 지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성서 텍스트의 해석에 좀 더 시간을 쏟아야 하며 그럴 때에만이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사역(使役)이 아닌 사역(私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3. 창세기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창세기를 설교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그것은 창세기의 최종형태가 메시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가 형성되는 과정이나 편집되기 이전 형태는 학적인 담론이며 설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형태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신학적 메시지를 찾아내야 한다.

창세기의 구조는 잘 알려진대로 열 한 번의 *nirḥin*(톨레도트/축보)의 사용에 의해 나누어 진다. *nirḥin*(톨레도트/축보)는 이전 서술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나 문학적 주제를 반향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서술의 중심 주제를 소개함으로써 앞뒤를 연결하는 일종의 경첩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예적 장치를 통해 창조와 인간 역사를 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우주창조와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한 선구자들의 선택과 부름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성적 뼈대는 창세기 전체에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설교에 필요한 윤곽도 제공한다.³⁴⁾ 그러한 구조와 개요를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 창세기의 모든

34) Kenneth Mathews, *Genesis 1-11: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33-34.

서술들은 독립적으로 제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그러한 통합된 구성적 전략 속에서 신학적 메시지를 찾아내야 한다.

위에서 설교의 오류를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좋은 설교의 예를 들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창세기 마지막부분에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그 민족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준비과정이며 그러한 동일한 시각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발견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19-20). 이 구절과 연계해 ‘위대한 인간 승리’라는 제목으로 어떤 목사님이 요셉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의 메시지를 했다.³⁵⁾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졌다는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배후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섭리신앙’이라는 말은 정확한 신학을 반영하면서도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우수한 표현이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런 자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 셋째, 요셉은 그러한 용서를 사랑과 자비를 베풀음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며 그 결과 자신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창 50:21).” 사실 위의 첫째와 둘째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만이 셋째의 비결이 나올 수 있으며 셋째의 비결을 실천 할 수 있는 자만이 첫째

35) 옥한흠, 「고통에는 뜻이 있다」(국제제자훈련원, 1983), 228-234. 이 부분의 메시지의 굵은 제목을 가지고 약간의 응용을 했다. 고 옥한흠 목사는 예장 합동측 목사였다.

와 둘째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라 볼 수 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할 뿐더러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도 돌 볼 것을 약속한다.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은 정확한 신학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인도주의적으로 실천함 속에서 이루어진다.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정확하게 잘 대변한 설교다. 성경의 텍스트의 의도가 정확히 설교로 전환될 때에 메시지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

창세기에는 너무나 많은 보석들이 묻혀있다. 캐내어 보석들을 세팅에 얹혀 현대인의 신앙의 삶 속에 말씀의 진리의 찬란함을 전달하기를 바라며 그런 것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변혁(transformation)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위의 설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참고문헌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81).

Brueggemann, Walter,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Cassuto, U., *From Adam to Noah*, Israel Abrahams (Trans.) (The Hebrew University,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78).

Fretheim, Terence, "Genesi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Nashville: Abingdon, 1994).

Greidanus, Sidney, *The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8).

Gundry, Robert, *Jesus the Word According to John the Sectarian: A Paleofundamentalist Manifesto for Contemporary Evangelicalism, Especially Its Elites,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 2002).
- Kromminga, Carl G., “Remember Lot's Wife: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Texts”, *Calvin Theological Journal* 13 (1983), 32-46.
- Mathews, Kenneth, *Genesis 1-11: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 Mathewson, Steven D.,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Peterson, Eugene, *Leap over a Wall: Earthly Spirituality for Everyday Christians* (New York; Harper Collins, 1997).
- Sailhamer, John H., “Genesis”, Frank Gaebelin(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0), 1-284.
- Wenham, Gordon,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4).
- Wilson, W. I., *Wilson's Dictionary of Bible Types* (Grand Rapids, Eerdmans, 1957).
- 스캇 김슨 (책임 편집), 「구약을 설교하기」(김현회 옮김), (디모테, 2008).
원제 Gibson, Scott, *Preaching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2006).
- 김서택, 「은잔의 테스트」(창세기 강해설교 9 (40-44장; 홍성사, 2000).
- 더글라스 스투어트, 「구약주석 방법론」(박문재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원제 Stuart, Douglas, *Old Testament Exegesis*,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도널드 R. 누누키안, 「성경적 설교의 초대」(채경락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원제 Sunukjian, Donald R.,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7).

- 박조준, 「창세기 강해」(도서출판한길, 1990).
-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창세기 프리칭 예수」(장정주/조호진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원제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Genesis* (Grand Rapids: Eerdmans, 2007).
- 스티븐 매튜슨, 「창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이승진 옮김),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4). 원제 Mathewson, Steven D.,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2).
- 옥한흠, 「고통에는 뜻이 있다」(국제제자훈련원, 1983).
- 이동원, 「옛 창조에서 새 창조어로: 1-11장 강해 설교」(나침반사, 1992).
- 정용섭, 「속 빈 설교 꼭 찬 설교」(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대한기독교서회, 2007).
- 조다윗, 「창세기강해 (상)」(서울 서적, 1993).
- 차준희, “최근 한국 교회의 구약설교에 관한 연구: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2011년 12월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 논문
- 켄트 휴즈, 「구별하라」(정정호 역) (사랑플러스, 2006). 원제 Hughes, Kent, *Set Apart: Calling a Worldly Church to a Godly Life*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3).
- 하용조 목사,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창세기 강해 2; 두란노, 1999).
- 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교회 설교분석」(목회와 신학 총서 01)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검색어

보편화

모범화

도덕화

알레고리화

영해

A Case Analysis on the General Errors Made in the Preaching of Genesis

Yoon-Hee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Old Testament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agnose how the Book of Genesis is treated and preached by local pastors from the pulpit setting, apart from the academic arena, and also to demonstrate how preaching can drift away from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author of Genesis if it is not supported by sound exegesis. This article addresses several representative categories of errors that often occur in the preaching setting and furthermor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xegesis as a foundation to a sound sermon. The errors introduced in this article are: Generalizing, Exemplarizing, Moralizing, Allegorizing, and Spiritualizing. This article utilizes actual sermons on Genesis that were published by highly reputable preachers in this country and to which each of these errors apply with varying degrees.

www.kci.go.kr

This article also analyzes and evaluates the sermons to show precisely where these errors crept in, and when possible, provides an alternative exegesis of the passage by deriving the message, which naturally surfaces from this process. This article emphasizes to seek the true message of Genesis that was intended by its author and not to replace the main message with secondary elements. Once we determine the message of Genesis, we can safely build relevancy of that message to the 21st century audience.

Key Words

Generalizing

Exemplarizing

Moralizing

Allegorizing

Spiritualizing

- 투고일: 2013년 4월 01일
- 심사일: 2013년 5월 04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15일

www.kci.go.kr